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8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12일 (음력 2월 27일) 목요일



## Photo 漫評

### 침소봉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0일 '저체 파악한비에 따르면'간식 금융감독원은 2007년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1년간 해외연수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땀땀하다면 포스코로부터 지원받은 해외 연수 비용의 상세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재벌 대기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대기업 돈을 받아 미국 연수를 다녀온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적폐라 주장하는 0명박 정부 시절의 포스코에 대해 참여연대 사람은 뒤로 0번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 해외연수 선발과정은 더 이상했다. 포스코의 해외 연수생 선발은 전인 참여연대 사무총장이던 박원순 서울시장 YMCA 사무총장이던 이학영 의원이 했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글=조인호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유승민



김기식



임종식

##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동부권 표심 '최대 변수' 부상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표밭인 전남 동부권 표심이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전남 전체 유권자의 40%에 육박한 전남 동부권이 표심의 향배가 경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돼 경선 후보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1일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실시되며 1차 경선에서 과반(50%) 득표자가 없으면 18~19일 같은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한다.

### 김영록·신정훈·장만채 순천 사무실 차리고 표밭같이 동부권 숙원사업 등 공약 내걸고 표심 공략에 열올려

경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동부권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와 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은 전남 유권자의 40%에 육박해 동부권 표심이 선거 승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순천 출신인 초대 허경만 지사 이후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동부권 출신 도지사가 나오지 않은 점을 감안할때 동부권 표심을

잡는 후보가 경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다보니 김영록 신정훈 장만채 예비후보 모두 동부권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순천에 선거사무실을 꾸리고 표밭같이 한창이다.

각 예비후보가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동부권 공약도 내놓았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목포~보성간 남해안 고속철도 조기 완공과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철도로 건설 추진 등 SOC공약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동부권을 미래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해운산업, 항만클러스터를 통해 광양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륙과 해양을 연계한 웰빙힐링의 관광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부권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 동부 지역분부를 확대 운영하고 자치분권 개편에 맞춰 전남도에 '제 행정부지사' 직을 신설해 동부권에 특화된 맞춤형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오염물질 차단 등 삶의 질 개선과 전남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해 '섬진강 환경유역'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예비후보도 동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양만권 융복합 발전전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남해안 인구 200만명의 경제적 동반성장과 함께 영호남 대통합을 도모하는 신해양 남해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국정과제인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제조업과 물류, 관광이 어우러진 융복합 발전전략으로 전남경제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수엑스포장을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건설하고 순천만 국가정원의 국·도비 지원 확대와 순천만 갈대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면서 "전해의 자연 환경과 다양한 역사·문화를 동시에 소유한 여수 순천을 생태해양관광의 거점 그리고 이순신 호국거점을 중심으로 호국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여수산단의 재난에 대비한 여수 화상전문병원 건립 ▲순천소방안전체험관 건립 ▲이순신대교의 관리권 정부이양 ▲광양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 추가이전 ▲고흥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기완공 등 동부권 현안사업들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장만채 예비후보도 전남 동부권은 순천과 여수, 광양만 해도 광역시를 증가하는 인구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행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남도 제2경사를 동부권에 건립하는 한편 동부권을 잘 아는 동부권 출신의 정무부지사를 임명해 동부권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양~광주간 경전선 철로를 직선 직철화해 광양항의 물동량을 확보하고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정부가 발표한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계획을 살려 광양을 신소재 허브로 개발·신소재 관련 대학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는 국도 77호선을 확충해 관광 거점화하고 박람회 개최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유치하는 한편 박람회장과 경도리조트, 각종 숙박·회의 시설을 연계해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을 주도하는 남해안권 MICE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순천은 생태·정원·문화자원 융복합한 행복도시를 건설하고 정원산업, 반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 도시 첨단산업 육성을 할 계획이다.

야당 후보가 가시화되지 않아 민주당 경선 승리=본선 승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부를 가를 동부권 표심은 누구를 선택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용우 기자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The 57th JeollaNamdo Sports Festival  
2018.4.19.(목) - 22.(일) 4일간

장소 - 영암공설운동장 등 26개 경기장  
개회식 - 2018. 4. 19.(목) 16:00 영암공설운동장  
폐회식 - 2018. 4. 22.(일) 15:00 영암실내체육관  
주최 - 전라남도체육회  
주관 -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YEONGAM 2018



농사 시작하는 농민들 봄기운이 완연한 11일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고추를 심기 위한 비닐 멀칭작업을 하고 있다.

### 전남 수산업 경영인 656명 선정... 전국 절반 1위

여성도 143명 전국 여성의 51%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18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지원 대상자에 전남지역 656명이 선정돼 전국(1357명)의 46.9%를 차지, 전국 1위의 수산도임을 입증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야별로 어업인후계자 463명, 전업경영인 173명, 선도우수경영인 20명이다.

이는 지난해(657명)보다 17%가 늘어난 규모다. 연령별로 30대가 39.5%, 40대가 44.2%, 20대가 12.2%다.

특히 올해는 여성이 143명으로 전국 여성 선정인원 대비 51.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양식어업 70.3%, 어선어업 24.8%다.

올해부터는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융자) 지원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전업경영인은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선도우수경영인에게는 종전과 같이 3억 원이 지원되며, 자금 집행 기간이 2019년 6월에서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전남지역 수산업경영인은 1981~2017년 총 1만 1434명이 선정됐고, 현재 9074명이 어촌을 이갈아가는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연수 원장은 "신규 선정된 수산업경영인 모두가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어촌 조성에 더욱 힘을 계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